

포천사회 知識人 ④5

경북대학 진영서 교수

“지역의 歷史性 담보한 建築物 발굴해야”

세계 각 도시의 건축답사 통해 다양한 건축양식 파악

“건축이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폭넓은 지성과 감성을 조화시켜 나아가면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이며 건축인은 이러한 건축행위에 참여하여 자신이 연마한 이성적인 사고와 풍부한 상상력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 때때로 넘치는 도시와 건축물을 창조해 나아가는데 정열을 쏟는 직업인이다. 경북대학 건축과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전제 하에 건축 및 도시계획, 설계, 구조 계획 및 설계, 엔지니어링은 물론, 개발구상, 기획, 생산 및 시공 분야 등 여러 관련 분야에서 폭 넓은 역할을 담당할 중견 건축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대학 건축과 진영서(50·사진)교수는 국내외 주요도시의 건축답사를 매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벤치마킹은 물론 현장답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4년 부임한 진 교수는 서울에서 태어나 동성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 공학사, 공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공학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했다.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조교, 가람건축연구소 과장, 동부건설 설계본부 설계부장을 거쳐 경북대학 건축과 교수로 부임했다. 주 전공은 건축계획 및 설계다.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건축과 학생들에게 건축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1년간 준비하여 현장답사,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는 답사교육은 공법, 재료, 설계수법 등 다양한 내용 파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도 함께 답사에 나서 어릴 때부터 공간지각능력이 뛰어나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 교수는 국립수안연구단지 현상설계 당선 및 실시설계, 동아대학교 부속병원(750병상) 현상설계 당선 및 실시설계, 대한주택공사 저소득층을 위한 200만호 소형주택계획 저소득층 부분 당선, 구로구민 체육센터 실시설계, 동부그룹 영빈 설계 감리, 목동 자원회수시설 공사 설계 감리, 경성전문대학 마스터 플랜, 경성전문대학 분관, 동우전문대학 정문 및 후문 디자인, 동우전문대학 예지원 기숙사, 동우전문대학 부암의숙, 경동대학교 마스터플랜, 경동대학교 분관 및 실습동, 경동대학교 정문 디자인, 동우전문대학 문화관, 경성전문대학 문화관, 경북대학 체육관, 경북대학 남양주 캠퍼스 마스터플랜, 경북대학 정문 디자인 등에 참여했다.

건축학회, 화재소방학회, 건축가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의정부시 건축심의위원, 포천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경기도 화재조

사 전문위원, 의정부에서 청사신축현상설계 심의위원, 명동성당 보수 보고서 실무위원회 위원, 포천시 경로당 신축·보수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회의 전문대학 학과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내의 주요도시를 선택해 사전에 세미나를 거치고 준비해서 답사에 나서고 있는 진 교수는 그동안 일본 큐슈지역 3회, 홍콩 큐슈지역, 마카오 홍콩 심천 광저우, 이집트 이스라엘 이태리 프랑스, 일본 관서지역,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뱀부,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독일, 일본 관서지역 대학캠퍼스 순방,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중국 북경 상해 소주 항주, 스페인등의 건축답사를 다녀왔다.

세계 각국의 건축물 답사를 통해 진 교수는 우리나라도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인 역사성을 보존하고 되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제시대 근대건축물 보존운동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성을 잘 보존하는 지역은 수원시라고 생각한다. 수원시는 화성을 잘 보존하고 주변 지역을 화성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이라고 본다. 도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을 바탕으로 한 밑그림이 중요하다. 이 밑그림을 바

탕으로 도시전체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건축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 지어지게 될 것이다.

외국의 관광객들이 서울시를 방문하여 서울은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서울시 건축물에 특징이 없다는 뜻도 될 것이다.

진 교수는 포천은 이제 새롭게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밑그림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연합팀이 구성되어 구상해 나가야 한다. 포천시는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다. 실제로 미군공역지역도 4개 지역에 460만여평에 이른다. 이같은 특성을 살려 통일이후에 전환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이 연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포천에는 골프장도 중요한 자원이자 산이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 산을 개발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진 교수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엔지니어보다는 건축적인 철학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 속에 나타난 전통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치를 담고 있는 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신문의 역할에 대해 진 교수는 지역의 건축물에 관심을 갖고 지역적 특성을 담보한 건축물을 발굴해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포천지역에 세워진 건축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소개하여 포천의 건축물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 교수의 주요논문 및 저서는 다음과 같다.

- ▶도시광장의 디자인스케일과 그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1982,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고건축의 건축계획적 논의와 구성요소의 현대화에 관한연구-병산서원을 중심으로(2000,경북대학)
- ▶도시공간계획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2001, 경북대학)
- ▶건축과 도시에서의 문화 및 전통(2004, 대한건축학회)
- ▶건축법규(1995, 문운당)
- ▶건축실제제도(1996,문운당)
- ▶건축계획(공저, 1998, 문운당)
- ▶건축의장과 표현기법(공저, 2002, 기문당)
- ▶건축·제도·설계(공저, 2003, 도서출판 서우)
- ▶건축표현기법(공저, 2004, 기문당)
- ▶건축계획(공저, 2006, 기문당)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 건축물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聯合팀 구성해야”

집중인터뷰 포천시의회 이종호 의원

“오피니언 리더 일로 승부해야”

토론이나 좌담회 지역현안 문제해결 모색



이종호 시의원은 “포천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피니언 리더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출직 공직자들은 4년 임기 중에서 3년은 지역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나머지 1년 동안은 다음 선거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면서 “오피니언 리더는 생색내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말고 일로 승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그의 말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임기동안 지역과 시민을 의식하기보다는 다음 선거를 의식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종호 시의원과과의 일문일답이다.

▶포천지역 사회의 특징은 포천사회의 특징은 한국전쟁 이후 8도민이 모여 산다는 것이다. 다양한 출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중의 하나였다. 지금은 보수성향이 퇴색하고 진보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지역성향을 감안해 지역통합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피니언 리더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들은 자기위에서 일로 승부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은 지역통합을 어렵게 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폐단이 발생한다. 선출직은 임기 4년 중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은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일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선거를 의식한 행동을 해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봉사는 하지 않고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또 자기위협과 본연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 계층처럼 지역여론을 유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포천지역 사회의 배타성에 대해 현재까지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많이 없어졌다고 본다. 포천역사와 미래를 위해서는 배타적인 의식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과거 3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과거토호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 활동하려고 했고, 그 범주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한 측면이 있다. 자유분방한 요즘 포천사회와는 맞지 않는다. 또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일꾼을 뽑는 일인데 출신지역을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포천지역 사회의 구심점에 대해 국가도 정치가 불안정하면 구심점이 없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포천지역은 정신적 지주가 없다. 도덕성을 가진 원로들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이끌어 줘야 한다. 경륜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륜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현재 포천 사회는 원로와 오피니언 리더들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오피니언리더들이 원로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구시대와 신시대의 대화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구심점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현직에서 물러난 정치원로나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갈등원인 및 해소방안 시민들의 갈등은 원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갈등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말이다. 지역의 여론주도층은 지역정치인들이다.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담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또 선거 기간이 아닌데도 미리 경쟁하기 때문에 갈등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들은 포천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이들의 인격적 비하 발언이나 진위와 관련 없는 말 소문을 흘리고 다닌 사람들이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다. 일로 승부를 하면 좋은데 상대방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보다 시장이 일을 잘 한다고 말이 있으면 국회의원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벼슬자리가 주인 역할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해 주면 되려고 해야 한다. 일로 승부를 해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포천지역 현안문제 및 해결방안 시민들의 대다수는 지역현안 문제로 첫 번째 교통문제를 꼽는다. 그리고 교육문제와 지역생산기반 시설 등이다. 새로운 개발을 위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민자고속도로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줄기는 정해졌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최대한 협조시켜야 한다. 국가도 갈팡질팡하는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투자 효과가 나오기까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환경개선과 더불어 학부모와 학생, 교사, 주변어린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은 큰 역할을 못한다.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또 포천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10만명 규모의 공업단지를 4개 혹은 5개 정도를 유치해야 한다. 아름다운 도시와 더불어 사람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이 필요하다. 미래 산업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포천시의 정책결단과 더불어 유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에 대해 각자 의견과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오피니언 리더들이 수시로 만나 실질적인 토론회나 좌담회를 가져야 한다. 토론회나 좌담회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각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자비로 전할 생각만 하지 말고 지역의 사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물을 자기만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일에는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일에 정치성을 개입시키거나 문제가 된다. 상대방 말꼬리나 잡고 행사장에서 자리싸움을 하는 것보다 큰 그릇은 그 역할을 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나뭇가지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 했으면 한다. 작은 생각이 아닌 큰 생각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전국 꽃 배달 서비스

신속배달 꽃 아남플라워

http://www.anamflower.co.kr

<p>의미있는 축하의 마음 생일기념일</p> 	<p>사업의 번창을 기원 개업/이전</p> 	<p>소중한 당신은 내 운명 사랑의 고백</p> 	<p>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승진/취임</p> 	<p>건강과 쾌유를 빕니다 출산/병문안</p> 	<p>이사·새집 마련 축하 집들이 선물</p> 	<p>애도와 추모의 마음 근조/추모</p> 
---	--	---	---	--	--	--

■대표 장춘화 ■031) 847-2298 ■의정부시 금오동 374-1번지 아남주상복합상가 119호